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TWISTED TREE

가제 : 뒤틀린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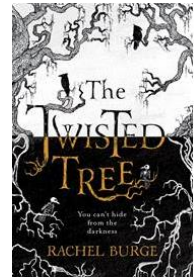
저자 : Rachel Burge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호러/판타지



* 러시아 판매 완료 / 1월 출간 후 영국 아마존 서평 100건 이상 등록

* “읽고 나면 시선 끝에 걸리는 그림자에 겁을 집어먹게 만들 만큼 으스스하면서도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판타지 소설이자 러브스토리.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이 장소에 관한 특별한 인상을 안겨 줄 것이다” - 「선데이 타임스」

* “북유럽 신화와 무서운 이야기가 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아이리시 이그제미너」

실내에 들어와도 절대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한 소녀가 노르웨이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급히 공항에 들어선다. 엄마는 이혼한 아빠 집에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사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여행을 준비했다. 외할머니가 혼자 계신 곳, 세 식구가 나름 단란하게 살던 시절에는 아빠까지 다 함께 여름마다 찾아갔던 곳을 처음으로 혼자, 처음으로 겨울에 거짓말까지 하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해 여름, 배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섬 숲 한 가운데 자리한 외할머니 집에서 마사는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끔찍 없이 병원에 누워 9일 넘게 다친 눈에 붕대를 매고 있는 동안 마사는 왼쪽 눈에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설명을 듣고 내내 불안에 떨었지만 문제는 시력으로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은 헤어지고, 엄마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마사가 눈에 붕대를 풀자마자 퇴원을 시키더니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덩고 답답한 붕대가 벗겨진 날, 마사는 자신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의 웃이 달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 기억이 눈 앞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붕대를 풀어주는 의사 선생님의 웃 소매가 뺨에 스치는 순간 어두컴컴한 방 안에 절망한 얼굴로 서 있는 그의 얼굴과 최근에 부친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영화 장면처럼 순식간에 떠오른 것이 시작이었다. 열일곱 살쯤 되면 그런 이야기를 의사에게 해 봐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자칫 정신병동에 갇힐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엔 충분했으니, 마사는 누구에게도 이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때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다. 여름에 만날

때마다 할머니가 나고 자란 북유럽의 오랜 전설을 들려주고, ‘너도 언젠가 나처럼 갈매기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할머니라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해서는 안 될 거짓말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사의 쓴 편지에 할머니가 보내온 답장을 몰래 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엄마의 옷자락을 만진 후 떠오른 것이다. 왜 엄마는 갑자기 할머니와 연락을 두절하고, 마사까지 억지로 그렇게 만들까? 할머니 집에는 전화도 없어서 잘 계시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다 못한 마사는 직접 할머니 덕에 가서 사고 이후 벌어진 변화에 대해 다 털어놓고 의논하리라 마음 먹는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할머니 집에는 그리워하던 얼굴 대신 낯선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소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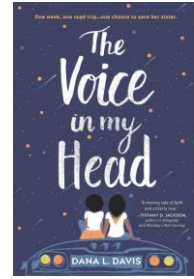
오슬로에서 왔다는 스티그라는 그 소년은 계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휴가철에 몇 번 와본 적 있는 이 섬으로 무작정 도망을 왔다고 설명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지만 잠깐 잠든 사이 소매치기가 다 털어갔다는 사실을 섬에 도착한 후에야 깨달았고, 멍하니 서있다가 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숲 속 오두막에 혼자 살던 노인이 일주일 전에 죽었고, 영국에서 딸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 딸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사의 스티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어쩔 줄을 모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티그도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시때때로 비가 쏟아지는 겨울 밤에 갈 곳도, 돈도 없다는 그를 마냥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한 두 사람은 할머니가 키우던 개와 함께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그러나 마사와 스티그는 창문 밖에 나타난 기이한 형상을 보고 인적 드문 그 숲에서 밤을 지새우는 건 두 사람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마사의 떨어진 나무, 극심한 고통 속에 온 몸을 비트는 사람처럼 가지가 온통 심하게 뒤틀린 할머니 집 정원의 큰 나무 쪽에서 무언가가 집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사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항상 그 나무 밑으로 마사를 데려가서 ‘귀를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했다. 매년 그렇게 해보라고 했지만 마사의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었고, 나무 앞이 아닌 뿌리 쪽으로 물을 등뺍 주는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은 우습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땅 속 깊은 곳, 끝 없이 뻗어나가는 그 나무 아래에 죽은 자들로 가득한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할머니 집안은 대대로 나무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엄마의 거부와 실수로 지하 세계에 있어야 할 죽은 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마사의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유령이 되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이들을 물리칠 사람도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차가운 밤공기, 섬뜩한 침묵만 가득한 숲, 정체 모를 괴물 등 북유럽 특유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배경 속에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고투를 벌이는 마사의 싸움을 그린 판타지 호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이첼 벌지(Rachel Burge)는 프리랜서 작가로 BBC 월드와이드, 코스모, MTV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글을 썼다.

제목 : VOICE IN MY HEAD
가제 : 나를 찾아온 속삭임
저자 : Dana L. Davis
출판사: Inkyard Press
발행일: 2019년 5월 2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 “가족 간의 유대, 종교적인 탐구,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가 맥동하는 심장처럼 느껴지는 감동적인 소설” - 「커커스 리뷰」
- *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성장 소설. 작가는 엉망진창이고 복잡한 가족 간의 사랑을 포착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 「When Elephants Fly」의 작가 낸시 리처드슨 피셔

가만히 서 있어도 칼 바람에 온 몸이 떨리는 겨울 밤, 인디고 필립스는 코트도 걸치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 위로 올라간다. 내리는 비가 그대로 얼어 한 발 디딜 때마다 미끌미끌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던 인디고는 너무 차가워서 오래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철재 난간에만 의지해서 이 미끄러운 나무를 더 오를 수 없다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멀리 시애틀 시내의 불빛이 보이자마자 눈물이 차오른다. 인디고가 추위를 무릅쓰고 이 위험한 공사장에 밤 11시에 혼자 올라온 이유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였다. 3분 남짓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 바이올렛이 내일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텐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 붙어 지내고 싶었던 바이올렛 없이 더 살고 싶지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이나 이웃들, 학교 친구들 모두 자신보다 훨씬 씩씩하고, 재능도 많고, 똑똑한 바이올렛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인디고는 혼자만 살아 남는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마음 편할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희귀한 호흡기 질환에 걸려 지난 1년간 사투를 벌이던 바이올렛은 치료 방법이 없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 이런 상태로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존엄사를 택했다. 열여덟 살 생일이 지나고 내린 바 단호한 결정이라 엄마 아빠도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었고 인디고와 다른 가족들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영원히 사라질 바이올렛을 생각하며, 인디고는 뺨속까지 파고드는 바람 속에서 뛰어 내릴 준비를 한다.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 때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인디고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가 탈골되고 여기저기 큰 상처가 낫지만 죽지 않았다. 근심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과 이런 상황에서도 쉴 새 없이 놀리고 비아냥대는 남동생 알프레드 때문에 혼란스럽던 순간이 지나가자, 인디고는 몇 시간 전 공사장 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울며 기도했던 일이 떠올랐다. 스스로 택한 죽음의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인디고는 신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인디고는 기겁해서 그만 발이 미끄러진 것이다.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놀라 미

끄러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인디고는 여전히 변한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몇 시간 후면 바이올렛은 예정대로 침대에 누워 치명적인 약물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밤에 들은 목소리가 또 다시 인디고를 찾아온다. 도움을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한 그 목소리는 바이올렛을 살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드넓은 애리조나 사막에 형성된 기이한 암석 지대, ‘더 웨이브’로 바이올렛을 데려가서 4 킬로미터 정도 높이의 정상에 무사히 도착하면 씻은 듯이 낮게 된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독실한 신도였던 인디고는 안락사를 기다리던 바이올렛에게 목소리가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며 웃음을 터뜨릴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한 번해보자는 바이올렛의 반응에 인디고가 더 기겁한다. 바이올렛이 내건 조건은 더 놀라웠다. 인디고와 둘만 갈 수는 없으며,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차에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틈만 나면 싸우는 엄마와 아빠, 세상만사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의 자세로 고개를 뺏뺏이 들고 살아가는 피곤한 언니와 콜빌 인디언 출신인 형부, 두 사람이 낳은 어린 조가 돌,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잠시도 놓지 못하고 짜증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남동생 알프레드까지 모두 다 함께 여행을 가다니? 여기서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인디고의 말에 놀라 여행에 합세하기로 하면서 무려 아홉 명이 바이올렛을 살리기 위한 긴 도로 여행을 떠난다. 바이올렛이 식구들이 다 가야 안락사를 미루겠다고 선언한 이상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었기에 성사된 여행이었다.

하지만 바이올렛의 예상대로 애리조나로 향하는 긴 여행은 결코 순탄치 않다. 원하는 것도, 성격도 모두 다른 가족들이 좁은 차 안에 갇혀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니 예상을 뛰어 넘는 상황들도 찾아왔다. 인디고는 태어나 지금까지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 모두의 관심이 바이올렛에게 쏠릴 때마다 소외감과 서운함을 이겨내기 위해 최대한 ‘멀쩡한 척’ 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활용해 왔는데, 더 이상 그 방법은 효과가 없음을 깨닫는다. 누구와도 잘 지내는 바이올렛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인디고는 리더가 되고 싶은 천성적인 기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강렬한 희망이 반복적으로 꺾이면서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식구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여행을 떠난 바이올렛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낯선 곳에서 영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요상한 동네 주민들과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인디고 가족의 여행은 계속될 수 있을까? 간호사인 큰언니 미첼이 바이올렛을 당장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더 큰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인디고는 또 다시 하늘에서 전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더 웨이브로 가면 정말 바이올렛이 신이 약속한 대로 다시 살 수 있을까? 유쾌한 인물들의 서슴 없는 농담과 진한 감동, 그리고 ‘죽을 권리’와 생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다나 L. 데이비스(Dana L. Davis)는 ‘Heroes’, ‘Prom Night’, ‘Franklin & Bash’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소설가다.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비영리 단체 ‘Culture for Kids LA’를 설립했다. 저서로는 데뷔 소설 『Tiffany Sly Lives Here Now』가 있다.